

부록 1.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 (1999-2004 사례)

2004년 말 외국인 근로자들에서 발생한 노말핵산 중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적절한 작업방법이나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직업병은 톨루엔, 노말핵산 등의 유기용제 중독이나 납 중독,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밀폐공간에서 고농도로 노출되는 작업자에서 급성 중독성 질환으로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급성 중독은 우리나라 작업환경의 점진적인 개선과 더불어 더 이상 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 관리와 정보 부족에 의해 급성 중독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근래에는 저농도의 유해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서 직업성 암 등의 만성질환이 업무상질병으로 발견되기도 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작업장의 유해요인 들 즉, 생물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 중 화학적 요인은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며, 다른 유해요인 보다 비교적 알려진 물질 들이 많아, 업무상 질병에 관련된 조사와 연구에서 중심적인 영역을 차지해 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999년부터 2004년 동안 심의한 680여 건 중, 화학물질에 의한 건은 447건으로 65.7%를 차지하였다(그림 1).

최근에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작업 관련 스트레스 등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진행되고 있지만, 200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 받은 업무상 질병 통계에 의하면 총 800건의 업무상 질병 중 526건 (65.8%)이 화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화학물질을 유해요인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화학물질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하며, 그 성상에 의해 유기용제, 가스, 기타 화학물질, 중금속, 분진 등이 다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 글에서 소개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상질병 심의 건 중 화학

물질과 관련하여 조사된 건들의 화학물질을 세분 해 보면, 특정 화학물질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기용제가 가장 흔히 관련되었으며, 분진, 중금속, 가스 등으로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 그러나 분진의 경우 직업성 호흡기 질환과 관련되어 따로 언급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분진을 제외한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 중 조사에 부적절한 요청으로 분류된 건을 제외한 총 317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 소개한 사례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직업병 심의를 의뢰한 사례들 중 기준에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우리나라에서 사례보고가 없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과관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화학물질별 직업병의 종류를 검토하고,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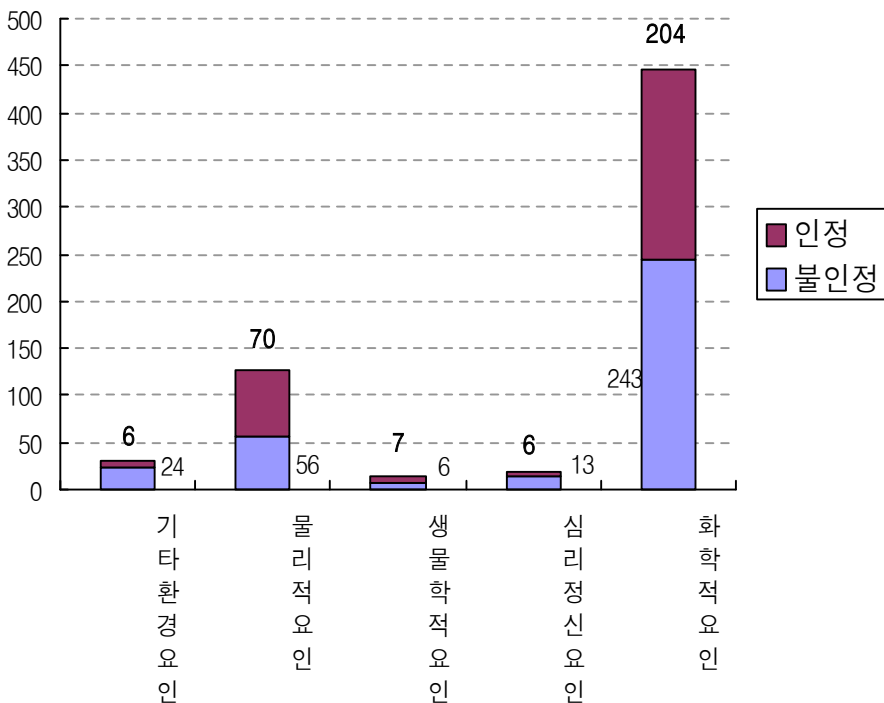


그림 1 유해요인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 건수 (1999-2004)